



이근삼 박사의 개혁주의 교회론

Dr. Lee Kun Sam and Reformed Ecclesiology

이환봉*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차

들어가는 글	208
1. 교회의 본질	210
2. 교회의 표지	214
3. 교회의 속성	218
4. 교회의 직분	221
맺는 글	222

요약

이근삼 박사의 개혁주의 교회론

이근삼 박사는 교회의 사명과 기능(praxis)에만 집착하는 기능적 교회론을 경계하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identity)을 중요시하는 본질적 교회론을 추구하였다. 그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명칭' 그리고 '교회의 표지'와 '교회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참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도 그러한 교회의 본질에 근거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교회의 본질과 관계없이 '교회연합'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 속성 즉 단일성과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에 대한 논의 안에서 진정한 '교회연합'의 사명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근삼 박사의 교회론은 현대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오늘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가지게 해준다. 이근삼 박사는 자신의 교회론을 통해 오늘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먼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주제어:

이근삼, 교회, 교회론, 교회의 본질,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

*Dr. Lee Kun Sam
and
Reformed
Ecclesiology*

Dr. Lee Kun Sam and Reformed Ecclesiology

Prof. Dr. Hwan-Bong Lee

Dr. Lee Kun Sam warned the functional view of the Church that emphasizes only its task and praxis, and pursued the essential view of the Church that regards the essentiality and identity of it. Through discussing "the images", "the titles", "the marks" and "the attributes" of the Church, he continued to find out the biblical nature of the true Church. And he tried to explain the task and function of the Church from the point of its nature. For instance, he did not deal "the unification of the Church" without considering the nature of it, but found out the vocation and task of the Church's unification with discussing its essential marks. Dr. Lee's ecclesiology urges us to reconsider the matter that the reason why contemporary churches cannot be true churches is because they are not being one with the Trinity. Through his ecclesiology he tells us clearly that, above all else, the true reformation of the Church is the way to restore the nature of the church.

Key words :

Lee Kun Sam, Doctrine of the Church, Ecclesiology, the nature of the Church.

들어가는 글

이근삼 박사는 한국의 초기 역사적 정통 개혁신학의 대표적 신학자였다. 그는 고려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카버넌트 신학교(Covenant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학하였으며, 그리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그는 고려신학교에서 박윤선 박사와 한상동 목사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였다. 유학하여 당대의 대표적 개혁주의 신학자들인 반틸(Cornelius van Til), 베르카우워(G. C. Berkouwer), 바빙크(J. H. Bavinck)로부터 전공분야의 신학적 훈련을 받았으며, 개혁주의 사상과 세계관 분야에서는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볼렌호벤(D. H. Th. Vollenhoven), 스토키(H. G. Stoker)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았다.

그는 박윤선 박사의 뒤를 이어 미국과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 양자를 모두 소화하고 통합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성숙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전수할 수 있었다. 1962년 모교인 고려신학교의 교의학(조직신학)교수로 부름을 받은 후 32년 동안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 그리고 고신대학교의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한국 정통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굳건한 초석을 놓았다.

이근삼 박사는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과목들을 1970년대부터 「기독교론」(1971), 「구원론」(1979) 등의 단편 강의안 형식으로 만들어 강의하였고, 1990년에 그 강의안들을 새롭게 정리하여 조직신학의 모든 각론 주제를 포함하는 단행본으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출판하였다.²⁾ 은퇴하신 후 미국에 설립하신 복음대학교(Evangelia University)에서 계속 조직신학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평생의 조직신학 강의와 연구를 집대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강의안을 저술하기 시작하였다.

논문 형식의 집필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것은 '신론'까지 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그러했지만 미국에서도 총장으로서 학교운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분한 집필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미국에서 정리하여 간행한 조직신학 강의안들은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각 주제들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 논의와 구명(究明)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교의학 강의안과 관련 주제에 대한 모든 글들을 편집하여 총10권으로 엮어진 「이근삼 전집」(2007)의 「개혁주의 조직신학 개요 1」(제5권)과 「개혁주의 조직신학 개요 2」(제6권)로 출판하게 되었다.³⁾

『교회론』은 제6권 「개혁주의 조직신학 개요 2」의 제4부(pp.262-341)에 수록되어 있다. 이근삼 박사의 교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이

* 이 논문은 「제1회 이근삼 강좌」(고신대학교/미국복음대학교 주최, 2008년 3월 31일)에 발표한 글을 다시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이환봉 교수는 고신대학교 신학과(Th. B.) 및 신학대학원(M. Div., Th. M.)을 졸업한 후 남아공화국 Potchefstroom University에서 교의학을 전공하여 "Historical Criticism of the Bible: A Critical Evaluation of Its Validity as a Recognized Principle for Biblical Hermeneutics" 라는 논문으로 신학박사(Th. D.) 학위를 받았다. 미국 Calvin College & Calvin Theological Seminary의 The 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에서 객원교수(Faculty Research Fellowship)로서 칼빈의 신학을 연구하였으며,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의학 담당 교수이며 개혁주의학술원 원장이다. 저술로는 「현대 복음주의 성경관 논쟁」,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현대인을 위한 개혁신앙과 윤리」, 「개혁주의 성경관」 등이 있다.

2) 이근삼, 「기독교의 기본교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위원회, 1990.

3) 이근삼, 「한국의 개혁주의자 이근삼 전집」(제1권-제10권), 생명의 양식사, 2007.

‘교회론’ 저술뿐만 아니라 평소의 교회를 섬기는 신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투고한 여러 글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의 교회에 대한 실천적 논의에 대한 분석은 다음으로 하고 본 글에서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교회론의 주요한 내용적 구성은 교회의 본질(교회의 모습과 명칭),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 교회의 직분, 역사적 교회의 유형들로 되어 있다.⁴⁾

1. 교회의 본질

제1장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교회의 네 가지 형상(모습) 즉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연이어 제2장 “교회의 명칭”에서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들 즉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계속 논구하고 있다. 또한 제7장 “교회의 삼중적 관계”는 본래의 교회론 강의안에 없는 글을 부록 형식으로 교회론에 첨부한 것이지만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교회의 본질을 논하고 있다.

이근삼 박사는 우선 교회론 논의의 분량만을 볼지라도 모두 3장에 걸쳐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고 확립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대의 교회론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identity) 보다는 교회의 사명과 기능(praxis)에 집착하는 경

향을 경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삼중적 관계” 속에서 “교회의 전형적인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함이었다.⁵⁾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교회론이 교회의 ‘Be’ 보다는 ‘Do’에 역점을 두는 “아래로부터의”(from the bottom) 기능적 교회론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교회론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 실패한 이유를 교회가 영혼구원을 위한 구속적 기능만을 강조하고 사회구원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등한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오늘 교회가 높은 영적 차원에서 겸손히 내려와 사회적 정치적 차원을 가지고 세상과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들어 세상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참 교회되지 못함은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한 교회론적 경향은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영역에 몰두하기 보다는 관찰과 경험 가능한 이 세상의 영역에 몰두하도록 움직여 가는 경험적 기능적 세계관에 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 변화 속에서 이근삼 박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바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두신 것에 주목한다(요17:4, 6, 8; 14:10, 16; 16:7, 13).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증거들에 기초하여 “아래로부터의 교회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교회의 역사적 형태의 수평적 실험관찰에서 떠나서 위로부터의 수직적 형태”를 추구하는 “위로부터의”(from the above) 본질적 교회론을 수립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⁶⁾

4) ‘교회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교회란 무엇인가? (2)교회의 명칭 (3)참된 교회 (4)참된 교회의 표지 (5)교회의 속성 (6)교회의 직분 (7)교회의 삼중적 관계 (8)역사적 교회의 유형들.

5) 이근삼, 「한국의 개혁주의자 이근삼 전집」 제6권 : 개혁주의 조직신학 개요 2, p.309.

6) 상계서, p.310. 교회의 삼위일체론적 근거를 논하면서 “교회의 성부와의 관계”와 “교회의 성자와의 관계”만을 논하고 “교회의 성령과의 관계”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미완의 저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모습’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삼위일체론적 근거에서 묘사한 바대로 세 가지 즉 “하나님의 백성”(고후 6:16), “그리스도의 몸”(엡1:22-23, 고전12:27), “성령의 전”(고전3:16-17, 6:19)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근삼 박사는 제1장에서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 곧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개하고 있다. “성령의 전”을 생략하는 대신에 “새로운 피조물”과 “신앙의 공동체”를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을 추가한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옛 언약(창17:4-8, 출6:6-7)에 기초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옛 이스라엘’과 연결시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새 언약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고후5:17)로서의 새로운 왕국백성 즉 ‘새 이스라엘’과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것이다.⁷⁾ 따라서 이근삼 박사는 신약교회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마1:21, 고전1:2)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왕국이다”라고 규명하고 있다.⁸⁾ 그리고 현존하는 실체적(가견적) 교회를 “현재의 세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눈에 보이게 현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⁹⁾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회원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한 것이다.¹⁰⁾

7) 상계서, p.264 :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승리한 결과로 이루어진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왕국이다.”

8) 상계서, pp.262, 264.

9) 상계서, p.264.

10) 구약의 ‘옛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구원)이 신약의 ‘새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이근삼 박사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신앙의 공동체”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교회 안에 있는 인간 관계 구조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로 이해한 것이다.¹¹⁾ 사실상 교회에 대한 성경의 진술에 공동체의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 가득하다. 예를 들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는 것에도 교회의 공동체적 본질과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이근삼 박사는 신앙의 공동체는 “권위와 자유의 균형”이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먼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항상 그의 권위와 법칙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평적 상호 관계가 보장되는 공동체로서 결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수직적 관계에서 지배하려 하거나 개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를 통해 이근삼 박사는 지난날 교회를 하나의 제도와 기구로만 이해하여 위계서열적인 조직을 강조하는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의 잘못된 교회관을 교정하려고 한다.¹²⁾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개인주의의 형태”를 반대해야 하며, 또한 개인적 은혜로 남을 판단하거나 주관적 경험만을 강조하여 “교회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¹³⁾

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별개의 모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구원을 위한 두 갈래의 길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구원관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11) 상계서, p.265.

12) E. Brunner, *Das Missverständnis der Kirche, Vorwort*, 1951, p.8 : 브룬너는 이를 “교회의 1800년 동안의 오해”라고 하였다.

13) 상계서, p.266.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전형적 모습 중에 하나인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논하지 아니하고, 또한 교회론 제7장 “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공공롭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략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앞서 확인한 바대로 미완의 저술로 인한 생략이었으나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시고, 서로 봉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게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교회의 표지

이근삼 박사는 제4장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제3장에서 “참된 교회”에 대한 개혁자들의 입장을 비교 평가하고 있다.¹⁴⁾ 특히 루터와 칼빈이 참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만을 말하고 권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종교개혁 당시에 분리주의자들은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만을 언급한 개혁자들을 비난하면서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으니 로마교회도 교회냐?”는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근삼 박사는 그 질문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의 ‘권징’을 간과한 개혁자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⁵⁾

이를 위해 이근삼 박사는 칼빈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물론 칼빈이 권징을 교회의 본질적 특징에 포함

시키지는 않았으나 말씀과 성례의 필연적 결실로서 교회는 덕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 징계를 폐지하려는 자는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는 자가 될 것임을 경고한 사실에 유의하고 있다.¹⁶⁾ 그리고 칼빈이 파격한 분리주의자들을 경계하여 로마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과 성례를 보존하고 있기에 거기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는 하였지만, 사실상 칼빈은 당시 로마교회의 교황제도를 “종교에 대한 최대의 원수”와 “괴물”로 언급하면서 로마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¹⁷⁾ 고로 이근삼 박사는 칼빈이 로마교회를 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당시의 로마교회 자체를 인정한다기보다는 로마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⁸⁾

이근삼 박사는 계속해서 루터의 추종자인 멜랑히톤과 칼빈에게 치리 장로의 필요성을 깨우쳐 준 부씨는 이 권징을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참된 교회의 표지에 포함시켰으며, 칼빈을 추종하는 스코

16) 상계서, p.277.

17) 상계서, pp.279-280, cf. John Calvin, “The Author’s Prefaces, xl-xli” 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I,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9). “Reply by Calvin to Cardinal Sadolet’s Letter” (1539),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vol.1,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3), p.61. 그 외에도 칼빈은 로마교회를 “미신”과 “우상 종교” 또는 “거짓 신앙”으로 분명히 정죄한 바 있다.

18) 상계서, p.280 : “칼빈은 로마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적으로는 거부할 생각은 없었다.” Cf. 칼빈, 「기독교 강요」, 4권 2장 12절 : “내가 그 교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비록 비참하게 분산되어 있지만 기적적으로 보존하셨기 때문이며... 그러나 나는 그 교회들에게는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합법적인 교회 형태가 없다고 말한다.”

14) 이근삼, 상계서, pp.274-278.

15) 상계서, p.278.

틀랜드 신앙고백서(제18장)와 벨직 신앙고백서(제29장)에서도 교회의 권징을 교회의 표지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고 있다.¹⁹⁾ 물론 이근삼 박사는 칼빈이 권징을 참 교회의 표지로 내세우지 않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아마 칼빈이 권징을 말씀과 성례 속에 이미 내포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권징을 참 교회의 제3의 표지로 독립시켜 다루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그는 제4장 “참된 교회의 표지”에서 권징을 교회의 세 번째 표지로 제시하고 있다.²⁰⁾

루이스 벌코프도 칼빈과 아브라함 까이퍼가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만을 인정하였지만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간주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권징을 교회의 제3의 표지로 제시하고 있다.²¹⁾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권징이 참된 교회의 타당하고도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는 틀림없으며 또한 교회의 순결과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징이 교회의 존재(being)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교회 안에서만 독점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세 가지 표지가 다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 대해 벌코프는 잘 지적하고 있다. “엄격히 말한다면,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그것을 교리와 삶의 표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표지이다. 이 표지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표지는 성례의 바른 시행과 권징의 신실한 집행을 결정한다.”²²⁾

19) 상계서, p.281.

20) 상계서, pp.293-296.

21) 루이스 벌코프, 「조작신학」 하권,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pp.834-835.

22) 상계서., p.835.

이근삼 박사는 교회의 권징을 위한 ‘교회법’과 ‘재판권’의 필요성을 “평화의 촉진과 화합의 유지” 그리고 “질서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회 재판권은 “영적 권한”으로 “칼의 권세에서 완전 분리”되어야 하고, 권징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은 “합법적 회의 결정”에 의한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³⁾ 이러한 강조는 오늘날 교회가 시행하는 권징의 변질을 되돌아보게 한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의 권징이 교회의 평화를 파괴하고 화합을 물 건너가게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질서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론을 저술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를 별도의 제목으로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이근삼 박사는 말씀과 성례를 참된 교회의 표지 안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것은 한정된 시간의 강의를 위해 경제적으로 분류하고 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구속의 특별은혜를 전달하는 합당하고도 실제적인 방편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은혜의 방편을 교회의 표지 안에서만 다루게 될 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154, 178-196 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게 그의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는 외적 통상적 방편” 가운데 하나로 선언되어 있는 “기도”를 역시 적절히 다룰 수 없게 된다.

23) 이근삼, 상계서, pp.294-296.

3. 교회의 속성

교회론을 저술하는 대 부분의 학자들은 교리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따라 먼저 '교회의 속성'을 다룬 다음에 '교회의 표지'를 다루고 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교회는 자신들이야말로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즉 단일성, 기록성, 보편성, 사도성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참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에 의해 그 속성들이 교회생활의 생명력으로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비평적인 자기검증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네 가지 속성들이 두 가지 표지들에 의하여 검증될 때 비로소 교회는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참 교회를 논함에 있어 항상 순서적으로 먼저 교회의 속성을 논한 후에 교회의 표지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근삼 박사는 먼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논한 후에 '교회의 속성'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저술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개혁자들이 표지에 의해 속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먼저 검증의 기준인 표지가 제시된 후에야 올바른 속성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교회는 표지와 속성의 구별을 반대하였고 그 표지들은 속성들 속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으로서 속성을 판정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혁자들의 표지를 반대하여 그 표지를 속성으로 대치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속성의 교리가 니케아 신조에서 오래 전에 고백되었지만 그 교리가 변증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개신교의 표지 주장에 따른 로마교의 반발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유의할 때 오히려 개혁주의 교회론에서는 표지를 먼저 논한 후에 올바른 속성을 규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표지와 속성은 참 교회의 본질을 설명함에 있어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기에 그 순서에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니케아 신조(A.D. 325)가 "우리는 한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에 기초하여 참 교회의 속성을 단일성, 기록성, 보편성, 사도성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²⁴⁾

교회의 단일성에서 교회의 분열을 정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일치성을 이단 집단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이 교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다양성을 빙자하여 교회의 분열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multiplicity)을 추구하는 교회론을 발전 시켜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적 사명과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된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의 기록성에서 "교회의 본질은 거룩하고 또 거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도나티안(Donatian)들처럼 극단적 분리주의 입장에서 교회회원의 연약한 죄성을 전혀 용납하려하지 않는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지상교회 성도들의 기록성은 완전히 실현된 기록성이 아니라 완전한 기록성의 최종적 실현을 대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나누워 주며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라고 역설하고 있다.

24) 이근삼 박사는 베르카우워의 「교회론」(The Church)을 참고하여 네 가지 속성들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상게서, pp.297-304.

교회의 보편성을 주로 교회의 통일성 즉 상호 결속과 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영적 일치를 주장하면서 교파주의(denominationalism)와 교권주의(parochialism)를 배격하고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교회들이 먼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으며 어려운 일이지만 심지어 로마 교회와도 신학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이근삼 박사는 교회의 보편성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충만이 교회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충만이 온 세상으로 전달되기를 바라신다는 보편성의 선교적 의미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보편성은 선교적 사명을 촉구하고 있다.

교회의 사도성에서 “사도성이 어떻게 교회 안에 전수되었는가?” 그리고 “사도성이 어떻게 그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사도성은 “사도들의 증거와 권위가 오늘날 교회의 삶에 있어서 현재적 사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도성이 목사의 직무와 사역에 특수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어진 직무의 권위는 순종과 봉사에 있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처럼 선교의 사명에 대한 순종과 봉사가 있는 교회가 사도성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근삼 박사의 교회의 속성에 대한 설명에서 유의해 보아야 할 점은 교회의 본질적 속성들을 설명하면서 계속 그 속성들을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회의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을 각기 교회의 하나 됨의 사명과 계속 연결시키면서 교회연합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교회의 속성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교훈은 이근삼 박사는 오늘날 현대교회론자들과는 달리 교회의 본질과 관계없이 ‘교회연합’의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 속성들에 대한 논의 안에서 진정한 교회연합의 사명과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회의 본질에 뿌리를 내린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아마 이근삼 박사의 교회론에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별도의 장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⁶⁾

4. 교회의 직분

이근삼 박사는 교회의 직분을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간결하게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간의 목회사역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보았다. 칼빈의 분류를 따라 교회의 직분을 사중직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나누어 설명은 하였지만 교사는 말씀의 봉사자로서 결국 오늘의 목사의 직책으로 보아 목사, 장로, 집사로 구분하는 삼중직제를 따른다고 하였다.

원래의 교회론 강의안에는 없었지만 제8장에 “역사적 교회의 유형들”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Roman Catholic Church), 동방교회

25) 이근삼 박사는 그의 교회론 강의안 노트의 이 부분에서 앞으로 “세계교회의 재편성”을 예견하면서 진리와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됨을 추구해야 한다고 메모해 두었다.

26) 이근삼 박사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근삼 전집」 제7권에 “현대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3부), “교회의 시대적 사명”(5부)과 “21세기 교회의 사명”(5부)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특히 그의 개혁주의 문화관은 교회의 사명을 구체화한 것이다.

(Greek Orthodox), 루터교회(Lutheran Church), 성공회(England Episcopal Church), 침례교회(Baptist Church), 감리교회(Methodist Church), 웨이커 교회(The Quakers), 오순절 교회(Pentecostal Church), 개혁교회(Reformed Church)의 교회관, 특성, 정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평가하였다.²⁷⁾

맺는 글

이근삼 박사는 자신의 교회론에서 교회의 사명과 기능(praxis)에만 집착하는 기능적 교회론을 경계하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identity)을 중요시하는 본질적 교회론을 추구하였다. 그는 자신의 교회론 저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명칭' 그리고 '교회의 표지'와 '교회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참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도 그러한 교회의 본질에 근거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이근삼 박사의 본질적 교회론은 현대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은 오늘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깊은 반성을 가지게 해준다. 그는 자신의 교회론을 통해 오늘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먼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

이근삼 박사의 교회론에 나타난 칼빈에 대한 많은 인용과 언급은 그의 신학이 칼빈신학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임을 잘 증명해 보여주

고 있다. 그리고 미완의 집필로 상세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칼빈의 신학에 뿌리를 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집에 근거하여 자신의 논지를 이끌어 가며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학교와 교회를 위한 개혁자로서의 헌신을 다함으로 정작 자신의 저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완결된 저술을 전수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근삼 박사의 강의 안과 많은 글들 속에는 각 주제들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규명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깊은 뜻과 성경적 개혁주의적 교회관을 확립하기 위한 열정과 애정이 담겨있다. 사실상 이근삼 박사의 신학적 유산을 떠나서 고신의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실천 즉 고신교회의 교리와 생활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선진들의 신학과 신앙을 발전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시대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이끌었던 선진들의 글 속에 담긴 신학적 이해와 노력, 교회를 향한 신학적 예지와 신앙적 의지를 찾아 소중한 유산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스승의 어깨의 힘을 빌려 보다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겸손히 선배들의 신학과 신앙을 살피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

27) 상계서, pp.313-431.